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내 삶에 정부혁신* 광복 80

보도일시 2025. 9. 1.(월) 조간 배포 2025. 8. 29.(금) 14:00

부산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력 강화한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어선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업무 개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 이하 “부산해수청”이라 한다.)은 어선원 재해예방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 2명을 신규로 배치하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안전한 바다 일터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각 권역별로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있으나, 부산 지역은 전담인력이 없어 마산해수청에서 부산·울산권 어선**까지 관리해 왔다.

* 전국 어선원안전감독관 배치 현황 : 부산해수청 등 9개청 20명

** 대상어선(상시 5인 이상 어선원 승선) : 304척(부산 242척 / 울산 62척)

그러나, 9월부터는 부산해수청에서 지역의 어선 특성과 조업 현장 상황에 맞게 철저히 점검·감독함으로써 신속하고 강한 어선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산해수청은 최근 5년 간 사망·실종률 10% 이상 초고위험업종인 근해통발, 대형 저인망 어선 48척을 중심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어선소유자를 대상으로 어선관리감독자 지정과 어선안전보건표지 부착여부, 그리고 선장 등 책임자의 위험성 평가 이행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혜정 부산해수청장은 “조업현장의 작업여건은 육상 사업장과 다르게 매우 열악하다”라며 “안전사고로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점검 과정의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여 청렴도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책임자	과 장	서밀가 (051-609-6500)
		담당자	사무관	이외경 (051-609-6510)
			주무관	김동원 (051-609-65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어선원안전감독관 활동 현황**

위험성 특화점검 지원

대형선망 중대재해 현장조사 지원

관계기관 업무협의

중대재해사고 관련 선사조사